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17회차, 하나님의 왕국, 2부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7, 하나님의 왕국, 2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를 살펴보고, 예수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설교에서 가장 특징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는 그의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임재했다고 말씀하신 사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왕국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충만하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국의 임재와 미래 사이에 이런 긴장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복음서와 예수님의 왕국 선포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임재하지만 여전히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완전한 현현에 앞서 이미 현실인 것과 그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이 왕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전통의 다른 층이 아니라 단순히 구약의 종말 예언의 시작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신약에 도달하면 두 단계로 성취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이나 미래에 완성된 형태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왕국의 임재를 분명히 보여주는 몇 가지 본문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왕국의 특성도 살펴보고,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재한다고 말씀하실 때 가져오고 제공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왕국의 임재에 대한

가장 좋은 시작점이자 가장 명확한 언급이지만, 예수께서 왕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27, 28 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맥락에서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와서 흥미로운 점은 23절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일 수 있을까?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아니요, 사실 베엘제붓이요, 사실 귀신의 왕자, 사탄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열된 모든 왕국은 망할 것이요, 스스로 분열된 모든 도시나 집은 서지 못할 것입니다 . 사탄이 사탄을 몰아내면 그는 스스로 분열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내가 베엘제붓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백성은 누구로 쫓아내느냐?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방금 문맥에서 보여준 대로, 그리고 복음서에서 주변 문맥에서 보여질 대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고 제안하시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29절이나 28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미 왔다. 즉 ,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침투하여 사탄의 나라를 주장하고, 전복하고,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탄의 왕국 통치를 인정하지만, 어떻게 사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사탄의 왕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지구를 되찾기 시작하고, 남자와 여자를 사탄 자신의 통치와 통치와 권세와 권위에서 구출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온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진전되고 있으며 이미 사탄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은 마태복음 12장과 같은 본문에 이미 존재하는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의 왕국에서 사탄의 왕국을 침략하여 통치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본문들이 있지만, 저는 루가 복음의 다른 곳에 있는 몇 가지 다른 본문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루가복음 4장 16절 이하입니다. 루가복음 4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들어가셨고, 안식일에 평소처럼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읽으려고 하였고,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가 그에게 건네졌다. 그는 그것을 펴서 그것이 기록된 곳을 찾았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시력을 회복하게 하며,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드는 사람에게 돌려주고 앉았는데,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오늘 이 성경이 너희 가운데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읽으신 이 본문이 이사야 61장에서 인용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확립하시고, 그의 왕국에서 그의 통치를 다스리시는 맥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 삶과 사역에서, 제 치유에서, 제 기적에서, 제 사람들을 귀신 들림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에서, 제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에서, 제 기적에서 이사야 61장이 이미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 4장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도래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사역에서, 가르침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일에서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오심이나 예수님 안에서의 왕국의 임재, 왕국의 임재를 분명히 지적하는 또 다른 본문은 17장 21절입니다. 저는 뒤로 돌아가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올 것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임재는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부분적으로 도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공개적으로 관찰될 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가르침과 기적 속에 존재하여 남자와 여자가 이미 왕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특히 마태복음 13장과 같은 마태복음의 왕국의 신비에 대한 언급을 이해해야 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마태가 왕국의 신비를 언급할 때, 우리는 아마도 이것이 다른 것 또는 다른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왕국이거나 예수께서 어딘가에서 선포하고 제공하거나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왕국과 다른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아마도 마태복음 13장에서 특히 왕국의 신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도래했지만 강력한 방식으로는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온전한 힘으로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도래했고, 남자와 여자는 이미 들어갈 수 있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한 것처럼 미래에 도래할 저항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것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들은 또한 그것을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현존하지만, 선지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완전한 현현으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비인 이유입니다. 왕국은 현존하지만, 신비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저항할 수 없고, 공개적이며, 나타나고, 완성된 형태보다 앞서 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본문을 생각하고, 우리는 다른 많은 본문을 지적할 수 있고, 심지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에서 인용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본문을 지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사용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는 다른 많은 본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결국 큰 나무로 자라는 씨앗에 비유하셨고, 누룩이 전체 반죽에 퍼지는 반죽 덩어리에 비유하셨으며, 왕국을 여러 종류의 가라지가 섞인 밭에 비유하셨는데, 어느 날 나쁜 가라지는 뽑혀서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많은 비유의 힘인 듯합니다.

이 모든 우화는 왕국의 시작, 왕국의 취임, 그리고 그 최후의 현현을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왕국은 이미 여기에 있지만, 아직 최종 완성된 형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반죽 전체에 퍼지지 않은 누룩이 든 반죽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 다수,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왕국의 신비를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왕국이 이미 존재하는데, 선지자들의 책에서 읽은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궁극적인 완성과 최종 형태에 앞서 신비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반에 걸쳐 예수님이 미래의 왕국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모순된 역사, 상충되는 설명 또는 다른 전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이미 있는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의 일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잘 알려진 비유인 양과 염소에서, 제자들이 그에게 질문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역사의 끝에 재림하실 것에 대해 논하는 담론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34절: 그러면 임금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와서 너희의 기업을 받으라, 세상 창조 이래로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받으라. 그리고 나머지 문맥을 읽어보면, 전체 문맥은 누가 하나님의 미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지,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왕국은 아직 현재가 아닙니다. 왕국은 아직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잘 알려진 기도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는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 거기에서 평행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당신의 왕국이 오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온 지구를 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아직 완전히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아닌 관점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소위 행복에서 이미 돌아온 것을 봅니다. 맨 처음 것을 주목하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개시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미래의 의미로도 여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것은 아마도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 하늘에서 완전히 실현된 그의 주권은 아직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와 미래의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존재하며 미래에 있을 그의 궁극적인 현현과 완성에 앞서서 작용합니다. 요약하자면, 복음서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른 텍스트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왕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닌 현재와 미래의 그 왕국의 현현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가 살펴본 복음서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사탄의 영역을 침략하고,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성경의 성취로 그의 마지막 왕국을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과 2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그리고 지금은 선지자들의 기대, 특히 다윗 왕의 도래에 대한 기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윗의 아들이 되어 자신의 왕국을 제공하고 왕국의 구원의 축복을 자신의 백성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미래에 그 왕국의 궁극적인 절정적 표현에 앞서서 그렇게 합니다. 이제 복음서로 넘어갈 때, 죄송합니다. 복음서에서 벗어나 신약의 나머지 부분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실제로 서신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서 왕국에 대한 흥미로운 언급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 있는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서신, 특히 바울의 서신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문구가 얼마나 부족한지 흥미롭습니다.

복음서에는 곳곳에 나와 있고, 거의 익숙해져서 서신에 이르면 거기에 없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울과 신약 저자들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는 왕국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바울의 가르침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용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왕국의 축복을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다윗의 언약 언어를 도처에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다윗 언약의 맥락에서 구약성서 본문에 대한 암시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왕국이 제쳐두어졌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성취된 것을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열쇠로 전달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편지 몇 개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으로 시작해서 바울의 서신 외의 몇 가지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왕국의 완성된 형태를 발견합니다.

우선, 바울의 서신을 대략적으로 정경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바울 서신의 서론과 서신 서문의 시작 부분인 3, 4절에서 바울은 실제로 서신 서론을 확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교회에 대한 서신을 썼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워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확장합니다. 그 복음은 그가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성취에 대한 그 언어에 주목하세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약속된 것의 성취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는 지상 생활에 있어서 다윗의 후손이었고, 거룩함의 영을 통해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에서 부활함으로써.

다윗의 언어, 아들의 언어에 주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윗의 참된 아들이고, 심지어 그의 서신의 시작 부분에서도 바울은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논의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가져오는 구원이 예수께서 이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다윗의 참된 아들이고 이제 그의 백성에게 구원의 축복을 분배하실 것이라는 사실의 일부라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비슷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두 번이나 살펴본 잘 알려진 부활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종종 그렇게 하겠지만 다윗의 본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치와 왕국, 즉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나 왕국을 세우시는 언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은 중요한 본문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은 차례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 즉 그것은 참조입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부활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더 많은 열매가 올 것을 기대하며 먼저 부활하실 것입니다. 즉, 그의 추종자들,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파괴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왕국을 넘겨드릴 때 끝이 올 것입니다.

그는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해야 합니다. 시편 8장. 그는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해야 합니다. 다시 시편 8장에 대한 명확한 암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는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멸망될 원수는 사망입니다. 27절,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장을 분명히 인용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고 말할 때, 여기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 두신 하나님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행한 후에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킨 자에게 복종하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히 시편 8장을 성취하신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데, 아마도 다윗의 아들의 통치를 언급하는 다른 구약성경 본문이겠지만, 시편 8장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에

대한 의도를 성취하셨다고 말할 수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시는 것을 봅니다 . 그리고 그는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파괴하시고, 그런 다음 왕국의 열쇠를 아버지께 넘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통치는 창세기 1장에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성취하면서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이 절정에 도달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8편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아담 언어, 특히 몇 구절 뒤에 살펴본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신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며, 그것은 죽음의 궁극적인 패배를 가져오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적을 물리치신 후에 성경이 성취됩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왕국의 열쇠를 아버지께 넘기셨습니다. 또 다른 본문인 에베소서 1장 20-22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언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국과 특히 다윗의 언약 언어와 공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윗 언약 주제와 많은 중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통해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 그가 그의 통치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겠다는 그의 의도를 성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 21-2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주어질 수 있는 권능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 영역에서 오른편에 앉히셨을 때 행사하신 강력한 힘과 같은 권능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 그리고 현재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도 불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를 교회의 모든 것의 머리로 임명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것을 언급했지만, 기억해 보세요. 구약 성경 본문에 대한 명확한 인용은 없지만, 바울은 적어도 두 개의 시편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시편 110편입니다. 다윗의 아들, 왕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언급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주권의 위치, 권위의 위치를 상징합니다.

그런 다음 시편 8편,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예수의 다윗과 메시아 통치에 들어가는 입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시편 110편,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놓였습니다, 시편 8편.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로 인해 예수께서는 지금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부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다윗 왕의 약속된 통치뿐만 아니라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편 8편의 통치를 성취하고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모든 창조물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퍼뜨리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새로운 아담,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을 지닌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활과 하늘로의 승천을 통해 왕적 메시아 통치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4-28절에서 읽은 구절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이미 다윗의 약속과 시편 8편을 통한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면서 그의 메시아적 왕적 통치에 들어가셨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께서 모든 것이 마침내 그의 발 아래 성취될 때까지 통치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패배해야 할 마지막 적은 죽음인데, 아담이 그의 죄 때문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왕국의 열쇠를 아버지께 넘겨 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무궁합니다. 콜로새서로 넘어가서, 콜로새서의 몇 구절도 왕국 언어와 공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콜로새서 1:15를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구절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이 구절이 잘못 해석되어 예수님이 창조 질서의 일부라고 암시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아들에 대한 언어는 아마도 다른 시편, 다윗의 시편에서 바로 나온 것일 겁니다. 바로 시편 89장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전에 읽은 적이 있지만,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는 콜로새서 1:15에 있는 이 언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언어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만아들이십니다. 이제 시편 89편을 주목하세요.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9편과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잠깐 20절로 돌아가서 이 구절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았고,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고, 22절, 원수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23절, 나는 그의 원수들을 으깨겠다.

24절: 나의 신실한 사랑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아,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그의 뿔이 높이 들릴 것이다. 25절, 나는 그의 손을 바다 위에, 그의 강력한 손을 강 위에 두겠다. 그는 나에게 외칠 것이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다윗 언약의 일부입니다.

이제 27절을 들어보세요. 여전히 다윗의 혈통에 속한 왕인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내 만아들로, 가장 높은 왕으로, 땅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왕으로 세울 것이다. 다시 말해, 바울이 예수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말한 골로새서 1:15로 돌아갈 때, 그는 시편 89편을 암시하고, 다시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더 큰 아들로, 다윗의 참된 아들로, 예수께서 시편 89편의 다윗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창조물의 만아들로 성취하셨으며, 이는 그가 모든 것의 높은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아들은 그가 창조된 첫 번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윗의 약속을 성취하여 모든 창조물보다 높은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15는 분명히 왕권 언어, 다윗 언약 언어와 공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윗의 더 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만아들로서, 즉 땅의 높임을 받은 왕으로서, 사실상 창조주로서 통치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또 다른 본문은 왕국 언어와 다윗 언약 언어를 사용하는데,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백성들에게 빛의 왕국에서 거룩한 백성의 기업을 나눌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기쁨으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의 독자들이 이미 빛의 왕국을 공유하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그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주거나 데려왔습니다. 그러므로 13절이 공관복음과 매우 흡사하게 들립니다. 특히 마태복음 12장을 바울이 번역한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영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우리를 구출하셨고, 이제 그는 우리를 다른 권세나 왕국으로 옮기셨는데,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이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이라는 이 언어가 다시 다윗의 언약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89장에서 그는 내가 그에게 사랑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두는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 밖에서 다윗의 언어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으로서 예수를 발견하는데, 그의 왕국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의 왕국에서 그들을 구출하고 구원하심으로써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을 그리스도 왕국으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의 아들로 인도합니다.

14절,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을 얻었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윗 왕국이나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언급하는 다른 두 본문을 언급하겠습니다. 다윗 왕으로서 이제 약속된 왕국과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 본문들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언급한 본문들이지만, 우리가 언급했듯이 이 주제들 중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은 다윗 언약과 관련하여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나는 네 아버지가 된다.

답은 그 중 어느 것에도 없습니다. 그는 아들에게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다시 말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입니다.

시편 2장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합쳐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신 종말 왕국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예언적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서와 바울 서신과 관련하여 살펴본 증거를 요약하자면, 이것은 책 *Central Themes in Biblical Theology*에서 Roy Champa의 인용문입니다. 그는 만약 그의 것, 즉 예수의 것이라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이스라엘 회복의 열쇠라면, 예수는 지금 다윗 왕국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광스럽고 보편적인

단계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구원은 지금 땅 끝까지 가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다윗의 통치에 들어가셨으므로, 왕국의 축복, 왕국과 관련된 구원이 그의 백성에게 분배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땅 끝까지 퍼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처음에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살펴본 몇 가지 본문이 있지만,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왕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 참여하고, 스스로 다윗 왕이 통치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것, 즉 다윗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두 본문은 다시 읽지 않겠지만, 고린도후서 6:18과 요한계시록 21:7은 둘 다 다윗 언약의 즉각적인 공식을 인용하거나 언급하는데, 즉 내가 네 아들이 되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네가 내 아들이 되리라.

두 구절 모두 그것을 언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본문은 언약 공식을 사람들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약속을 성취하는 참된 다윗의 아들이지만,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아들입니다. 즉, 우리도 다윗의 참된 아들인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 다윗의 언약 약속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골로새서 3:10에서 다윗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에도 참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골로새서 1:12-13에서 우리 자신이 어둠의 왕국에서 사탄의 왕국에서, 그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음을 보았습니다. 이는 다윗의 통치가 수립된 것의 성취이며, 지금 온 지구에 퍼지기 시작한 다윗의 통치입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계시록 20-22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측면, 요한이 아직 현실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하고 싶은 첫 번째 장소는 계시록 20장과 계시록 20장 4-6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종종 하나님의 왕국과 지상 통치의 발전과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한 후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언급합니다.

부활과 통치를 합친 것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4-6절에서 저자는 "나는 보좌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보좌들이 있습니다. 보좌는 아마도 심판을 의미하지만 통치와 왕권과 주권과 권세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나는 보좌들을 보았는데, 그 보좌에는 심판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 20장 4-6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자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그 형상을 경배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났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 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둘째 사망은 그들에게 권세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무천년설이든, 우리는 이것을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천년왕국은 전체 교회 시대를 상징하지만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이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부터 그 전체 기간이 천년왕국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후천년설, 즉 교회의 설교와 전도, 그리고 영의 권능을 통해 천년왕국이 출현하고 그 후에 그리스도가 돌아온다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을 전천년설, 즉 그리스도가 돌아와서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천천년설로 돌아오고 그런 다음 지상에 그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저는 그러한 입장에 대해 논의하거나 어느 한 쪽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제와 어떻게 들어맞는지 묻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20장 4-6절이 사탄의 패배와 사탄에 대한 심판의 맥락에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무엇보다도 20장의 처음 세 구절에서 구덩이에 갇히고, 나중에 풀려나서 마침내 심판을 받고 처분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도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언급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다른 신학적 입장을 주장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질문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선, 저는 천년왕국이 사탄이 행한 일을 뒤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 특히 12장과 13장을 읽어보면, 사탄이 통치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는 성도들을 죽인다. 성도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왕국 아래서 사역을 수행하려 하자, 그들은 죽임을 당한다. 사탄은 12장에서 그들을 잘못 고발한다.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역전입니다. 사탄은 이제 재판관이지만, 성도들은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이제 통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나고 통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창세기에서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의 바로 그 성취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통치를 퍼뜨리고 통치해야 했지만, 그들은 죽었고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으로 역전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으며, 저는 다양한 천년왕국 입장의 찬반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적어도 이 틀 안에서 이것이 사탄의 통치의 역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통치와 사탄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심판을 받고 왕국을 잃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살아나서 통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타락으로 잃어버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는 죽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역전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견해를 취하든 적어도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단지 성도들이 통치하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왕국이 도래하는 것에 대한 전조이거나 준비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기 전에, 심지어 계시록 20장과 같은 본문을 보기 전에도, 계시록 4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왕좌는 통치와 주권의 상징입니다. 카이사르의 왕좌, 황제의 왕좌는 지상에 있으며, 그의 권위와 주권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좌는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그의 왕권, 그의 통치가 하늘에서 온전히 인식되고 완벽하게 실현됩니다.

4장에는 모든 창조물이 있고, 5장에는 모든 창조물이 보좌 주위에 모여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고 그들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장과 5장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에서 어떻게 완전히 실현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땅에서 어떻게 마침내 이루어질 것인가? 다시 한번, 땅에서 우리는 카이사르의 보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왕입니다.

카이사르는 통치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그의 왕국, 그의 주권은 하늘에서 어떻게 온전히 인정되고 실현될까요? 그것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될까요?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과 나머지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국의 신약학자 리처드 바우컴은 어떤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잠시 전에 읽은 주기도문 6장 12절에 대한 확장된 해설로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옵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하늘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의 뜻과 그의 왕국은 이미 하늘에서 인정되고 실현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해야 했던 그것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글썄요, 이제 계시록은 4장과 5장, 4장과 5장의 장면이 결국 땅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의 왕국, 그의 주권, 그의 통치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인정되고 완전히 실현되었지만, 죄의 모든 영향이 벗겨진 새롭게 창조되고 재구성된 땅이며,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저항하거나 방해할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계시록 21장과 22장을 4장과 5장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여러 본문을 볼 수 있지만, 제가 22장으로 건너뛸 수 있다면, 실제로 21장과 1장부터 시작해서, 그때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늘과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왕국들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존재론적 진술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진술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 카이사르가 다스리는 곳, 죄와 죽음에 의해 황폐해진 곳, 로마 제국에 의해 황폐해진 곳, 다니엘 7장에서 본 네 짐승과 계시록에서 발견되는 짐승과 같은 인간 통치자와 제국에 의해 황폐해진 곳, 지금은 지나갔지만 지금은 재창조되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한 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고 당신의 뜻이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이제 그것은 땅에서, 새 땅에서, 새 하늘 과 새 땅에서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현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4장과 5장에서, 하늘이 지금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동등하게 확장됩니다. 그 전에 요한은 하늘과 땅을 오가며 다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4장과 5장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제 천국은 땅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한 번 설교 제목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의 새 집이라는 제목의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나는 잠시 그 말에 당황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과 새로운 창조물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와 그의 왕국과 그의 통치가 이제 땅에 내려옵니다.

우리는 21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 그리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과 23장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지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들의 권위, 그들의 왕국, 그들의 통치의 상징,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시에 있을 것이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그의 통치, 그의 왕국,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윗의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보좌, 특히 어린 양의 보좌를 여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5장에서 요한이 누가 갈 것인지 찾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펼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계획을 성취할 것인지 궁금해하는데, 저는 그것이 두루마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장로 중 한 명이 그에게 와서 "울지 말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한 것을 보라"고 말한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은 다윗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아닙니다. 그가 계시록 22:3에서 마침내 세우는 왕국, 그의 왕좌가 새 창조물 위에 있는 도시 중앙에 있는 것은 다윗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새 창조와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좌는 권위,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데, 이는 4장과 5장 사이와 21장과 22장 사이에 작용했지만 지금은 파괴된

카이사르의 보좌와 대조됩니다. 22장 5절,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계시록 전체에서 이에 대한 다른 기대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언젠가 온 지구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다른 기대를 발견합니다. 즉, 이 세상의 왕국, 사탄과 로마 제국과 같은 짐승 같은 존재에게 속했던 왕국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 계시록 11장에서 저자가 말했듯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왕국이 이제 우리 주님과 그의 메시아의 왕국이 되었고 그는 영원무궁토록 통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22장 5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이지만, 맨 마지막에,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등잔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무궁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3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통치하기 위해 새 창조 위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새 창조물을 영원무궁토록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의도하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여 창조물 전체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인용한 대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통치를 퍼뜨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성취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과 그의 백성이 영원토록 통치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원토록 새로운 창조물을 다스립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구약에서 우리는 창조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형상을 지닌 자들을 통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려는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죄 때문에 좌절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다윗 왕을 선택하고, 회복된 다윗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예언적 기대를 통해 구약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그의 통치와 통치를 확립하실 때를 기대하고, 기대하고, 약속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것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인 예수께서는 그 약속들을 성취하기 시작하시고, 그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그는 다시 그의 메시아적 통치와 통치에 들어가시며, 그곳에서 그는 모든 창조물 전체에 그의 통치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왕국, 어둠의 왕국에서 구출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제 왕국에 들어가고, 속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왕국과 그것이 가져오는 구원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왕국 약속이 성취될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놓일 때까지 통치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양이 새 창조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그리고 그들의 백성도 그들과 함께 새 창조 안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다루신 긴 역사가 마침내 그 목표와 절정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7, 하나님의 왕국, 2부입니다.